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8000 FAX: 563-39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앞으로 7일

내일부터 새벽기도회 본당서 5시에

기도와 전도에 구경꾼이 없기를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은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거친 홍해가 가로막아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는 식수난과 양식난을 겪어야 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를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후에는 다시 요단강의 고비가 있었으며,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또 다시 예리고의 위협이 있었다. 어느 한 순간 마음 놓고 살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철의 요새라 할 수 있는 예리고를 13바퀴나 돌 수 있었다.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 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었으나, 확신을 가지고 하루 하루 돌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모두 13바퀴를 돌았다. 그러는 순간 인간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이제 7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잔치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하루 한 번씩의 특별 집회를 갖게 된다.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예리고를 도는 심정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6회에 걸쳐 새벽기도회를 실시한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시며 예배 시간은 종전보다 30분 앞당겨진 새벽 5시가 된다. 직장에 출근하는 성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까지 제공이 된다. 26일에는 1, 7, 13, 19교구가, 27일에는 2, 8, 14, 20교구가, 28일에는 3, 9, 15, 21교구가, 29일에는 4, 10, 16, 22교구가, 30일에는 5, 11, 17교구와, 대학부, 청년부가, 31일에는 6, 12, 18교구와, 교회학교가 주력하여 참석하여 기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도회는 동원에 의한 새벽 기도회가 아닌 자발적인 심령들의 새벽 기도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사는 구경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참여해야만 한다. 예리고를 돈 사람들은 일부 분도 아니고 대표자도 아니다. 모두가 다 돌아왔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돌아왔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돌아왔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정성으로 예리고를 도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다. 쉽지 않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6일 동안 새벽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며 돌아야 한다. 서로 전화로 깨워주면서, 같은 방향은 같이 승용차를 타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 예리고의 무너짐 같이 불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충현의 들을 밟는 자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13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며 새로 초청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하는 예수 사랑 큰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적극적인 전도를 합시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으며 이제는 손님들을 초청하는 일만 남았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지간에 이제는 자리를 채우는 일만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각종 전도지다. 각 전도회에서 구역의 식구들이 전도할 때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미 배포되어진 포스터도 각 지역마다 부착함으로써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뺏지를 가슴에 달고 전도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번 전도기간 중에 전도용으로 만든 주간충현 홍보판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도가 될 것이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택함받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자.

사전 교육 및 실무위원 예행 연습

행사 당일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할 경우, 결신자들의 성명을 기록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예상하여 진행부에서는 결신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사람을 각 교구에서 이미 40명씩 선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10월 25일(주일) 4

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실시된다. 또한 교구 모임을 마친 후 3시 30분에는 예수 사랑 큰 잔치 실무위원들의 예행 연습이 있다. 각 분과의 지도, 분과장, 교역자, 장로위원, 실무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여 행사 당일 시행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특별 새벽기도회 주력 교구

날 짜	담 당
26일(월)	1, 7, 13, 19교구
27일(화)	2, 8, 14, 20교구
28일(수)	3, 9, 15, 21교구
29일(목)	4, 10, 16, 22교구
30일(금)	5, 11, 17교구, 대학부, 청년부
31일(토)	6, 12, 18교구, 교회학교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 제목

1.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2. 나도 이번에 10명 이상 초청하여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확신과 전도의 자신감을 갖게 하옵소서.
4. 우리 모두가 민족과 세계를 향한 성령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충현프리즘

◎...지난 20일(화)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었던 김창인 원로목사 수도노회 공로목사 추대 및 장로 장립·취임식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수도노회가 설립된 이래 세번째로 추대되는 공로목사 김창인 목사는 답사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부족한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전제한 뒤 "천만 가지 하나님 은혜에 감

사하며 실수와 허물을 용서받고 오늘의 노회 공로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모든 충현의 성도들이 기도해주실 것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은 김창인 원로목사는 감사와 은혜로 눈시울을 적셨다.

1936년부터 목회를 시작한 그는 56년 동안 성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피와 땀과 눈

물을 바쳤다. 김 목사님께서 늘 즐겨 부르던 찬송가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의 신앙 고백은 이날도 참석한 주님의 권속들에게 감동과 진한 여운을 남겼다.

원로목사님!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백두산 소나무 찍어 무너진 예배당 수축하고

할렐루야 예배드리는데 그날까지...

◎...제26대 장로로 다섯명이 탄생되었다. 임봉남, 김여순, 이하영, 이관섭, 강협장로님.

장로 장립식때 서약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장로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의 지도를 받는 데 순종하고, 장로들은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 충현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해줄 것을 간절히 당부한다.



중헌강단

신성종 목사

중풍병을 고치심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마8:5~13)

산상설교(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장, 9장, 10장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열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번째 이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교훈은 예수님께서 공관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다.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회적으로는 별볼일 없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2천년 전에만 믿음을 가지고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어느 자매님이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분은 임신을 하지 못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마8:6)

여기서는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사랑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흔히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남자들의 힘의 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아도 아버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마8:8)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아와 간구하는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마8: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모실 자격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겸손입니다. 신앙에는 겸손이 따라야 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참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마8:8)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올 것도 없이 단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씩씩 놀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4. 영적 중풍병

중풍병은 어린아이가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중년 이후나 노년에 많이 걸리는데 뇌혈로 인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바비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봉사를 기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새신자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루 속히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고침받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중풍병에서 낫기 위해서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마8:13)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

종과같이 비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하인을 고치시는데 그는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하인은 멀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와서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의 팔짱 한 마디로 공간을 초월하여 멀리 있는 그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공간을 지배하신다는 것으로 옆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말씀 한 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수만 받아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안수가 중요한 것이지만 안수받지 않고도 믿음만 있으면 팔짱 한 마디로 고침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2. 세 가지 교훈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번째로, 예수님께서 권능이 많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예수님의 재비하심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으로서 주인의 재산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

들을 너무 사랑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3. 백부장의 신앙

본문에서 제자 마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없는데, 그 당시 개처럼 취급당한 에방인 백부장의 신앙은 크다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백부장은 에방인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에서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신앙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마8:5)

에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시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군대의 중요한 요직으로서 사회적으로 예수님께 명령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직책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제갈장을 떼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간구했습니다. 간구한다는 말은 마치 거지가 음식을 얻기 위해서 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백부장의 겸손과 기도를 볼 수 있습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자들 중에는 어떤 선배한 체험을 해야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선배한 체험을 하기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신앙은 체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체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마8:10)

다. 믿고서 가는 중에 그의 하인이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5. 결론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믿는 동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우리들의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들의 육적인 중풍병과 영적인 중풍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김창인 원로목사 수도노회 공로목사 추대를 축하함

박철구 집사(제8교구)



오곡백과 풍성한 향기로운 이 계절에
공로목사 추대잔치 성대하게 베풀오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제에는 경사롭다

칠십오년 사시면서 겸손으로 본이되고
오십육년 목회일생 순종으로 시무하니
참성도 참목자의 모범이 되셨도다

일제수난 인공핍박 기도로써 이겨내고
초창기 개척교회 눈물로써 재건되니
오늘의 충현교회 밑거름이 되셨도다

복음주의 보수주의 말씀중심 목회자로
세계선교 국내선교 앞장서서 실천하고
천국일꾼 길러내어 장래선교 준비했네

지구촌을 교구로삼고 해외선교 앞장서고
전후 방방곡곡 부지런히 다니시며
영혼을 구원하는일 앞장서서 행하셨네

백발을 날리면서 손을들어 찬송하며
엄하면서 부드럽게 진실하게 설교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은혜 받으셨네

먼앞날 내다보며 청사진을 제시하고
남들이 생각못할 선견지명 가지고서
역삼동 충현교회 이룩하여 놓으셨네

양떼들이 많아지면 보살핌도 많아지고
교회가 커질수록 할 일 또한 많아지니
주야로 많은일에 쉴 줄을 모르셨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서면 전도하고
기쁠때 찬송하고 슬플때는 명상하고
주의일 확장위해 노심초사 다하셨네

한세기에 하나있는 공로목사 되셨으니
남은생애 주님위해 더욱정진 하시면서
재림주 오실때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교회학교 부서별 전도 잔치 초등3부, 청년3부

초등3부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의 최종 준비 행사로 오늘 (10월 25일) 총동원 전도 잔치를 개최한다. 500명을 목표로 그 동안 전도 특강과 교사 기도회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여 노방 전도도 실시했다. 특히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믿지 않는 새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인형극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는다. 1부는 오전 9시 교육관 307호에서, 2부는

11시 교육관 308호에서 열린다.

한편 청년3부도 '92 예수 사랑 큰 잔치의 준비 단계로 오늘 초청전도집회의 날로 정하였다.

이 집회는 25일 오후 1시 교육관 514호에서 개최되는데,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청년3부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출석하지 않는 회원들과 새가족부를 졸업했으나 청년3부로 동반하지 않은 성도들을 찾아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성경 넷째권 - 민수기

1. 저자
오경의 나머지 부분과 같이 민수기의 저자도 모세이다(민 33:2).

2. 배경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끝난 한 달 이후의 역사적 이야기로 계속된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의 여러 곳을 통과하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된 39년간의 방황이 기록되어 있다.

3. 주제
민수기는 신뢰와 순종을 주제로 하며, 그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설명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백성과 미리암, 아론의 불신과 불명(민 11, 12),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거

부했던 백성들(민 14:2), 우상 숭배(민 25:3) 등은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방황 중에서도 그들을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되며 마침내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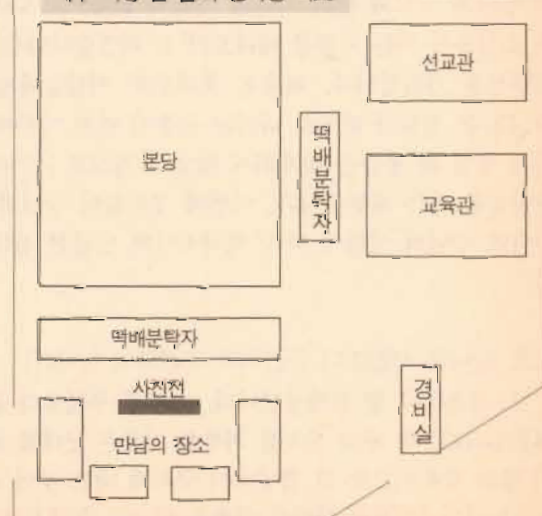
4. 종교적 가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자기의 선한 의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시며 인간의 교질적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 대한 자신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속박에서 풀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5. 개요
(1) 광야에서의 정비
(2) 가데스 바네아로의 행진
(3)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유숙
(4) 모압으로의 행진
(5) 모압 광야에서의 정착

7. 새신자 환영회

사후 조치 중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은 11월 8일에 새신자 환영회를 갖는 것이다. 이 때 해당 교구의 구역장과 더불어 참석하게 되는데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92 예수 사랑 큰 잔치는 일단락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전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 사랑 큰 잔치 행사장 약도



전도자-예수, 채우자-교회, 키우자-천국일꾼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은혜 중에 진행되기 위하여

영도
록하
며
장한
후
에
는
안
내
위
원
의
안내를 따라 좌석에 앉게 된다.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 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차할 때

당일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택시와 버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대로변에서 하차하며 직분자들의 승용차는 반도 유스호스텔 뒷편의 주차장을 이용한다.

2. 만남의 장소 활용

먼저 각 교구별로 초청자는 초청 대상자와 교회에서 만날 약속을 한 후에는 본당 앞뜰에 마련된 만남의 장소를 활용해야 한다. 거기에서 할 일은 초청 카드에 이름과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작성하는 것이다.

3. 입장권 현금

본당 로비로 입장을 하며 안내원들로부터 환영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다. 스티커를 붙일 때 할 일은 이미 기록한 초청 카드를 절취하여 카드함에 넣는 것이다. 입장할 때는 주보 및 여러 가지 교회 홍보 팸플릿을 받게 된다. 입장할 때 현금입구에 예비되어 있는 현금함에

4. 결신 카드 작성

예배 시간 중에 목사님의 설교 후에 결단의 시간이 있게 된다. 이때 결신하고 일어난 사람들은 결신 카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기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신하는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작성된 카드는 이미 배치되어 있는 안내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5. 교제의 떡

그 후에 초청자는 새로 온 사람들과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고 색당이나 그 외의 장소를 사용한다. 이 때 본당 밖에서는 찬양팀의 찬양이 있게 되며 이때 전시되어 있는 교회의 역사가 담긴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시간은 짧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6. 해당 교구와의 연락

사후 조치로 이 날에 결신한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해당 교구에 배치되며 해당 교구에서는 특별 교재를 사용하여 양육하게 된다. 동시에 새가족부에 소속시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당일에 결신하지 않은 사람들도 해당 교구에서는 중앙 컴퓨터에 입력하여 계속 관리하게 된다.

예수 사랑
큰 잔치

주력 교구의 원활한 운영

7부 예배는 저녁 예배로

행사 당일에는 2, 3, 4부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 인원의 수용 능력과 주차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주력 교구를 분산하여 배치하였다. 1부 예배에는 1, 2, 3, 4교구가, 2부 예배에는 5, 6교구가, 3부 예배에는 7, 20교구가, 4부 예배에는 8, 9, 21교구가, 5부 예배에는 10, 13, 14교구가, 6부 예배에는 11, 12, 17, 22교구가, 7부 예배에는 15, 16, 18, 19교구가 주력 교구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며 새로 오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도들이 7부 예배 중 한 번만 참석할 경우 저녁 예배가 희

석되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7부 예배는 저녁 예배 성격으로 드려지게 된다. 그러므로 1부에서 6부까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7부 예배에는 모두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7부가 주력 교구인 성도들도 초청자와 함께 낮에 한 번은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예수 사랑 큰 잔치 주력 교구

1부	1, 2, 3, 4교구
2부	5, 6교구
3부	7, 20교구
4부	8, 9, 21교구
5부	10, 13, 14교구
6부	11, 12, 17, 22교구
7부	15, 16, 18, 19교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내

1. 힘써 전도하여 예수 안 믿는 새친구(초청대상자)와 함께 참석합니다.
2. 부모님과 함께 본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3. 초청된 새친구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본당 현관에 마련된 함에 넣습니다.
4. 혼자 교회에 오는 학생은 본당 2층에 지정된 좌석에서 2부예배(오전 9시)를 드립니다.
5. 교회학교 만남의 장소는 본당 앞뜰 제2호 텐트입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

주차장 추가 운영

멀리 있는 교구는 부득불 전세 버스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주차 문제는 더 심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봉사분과에서는 행사 당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도 유스호스텔 뒷편의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교섭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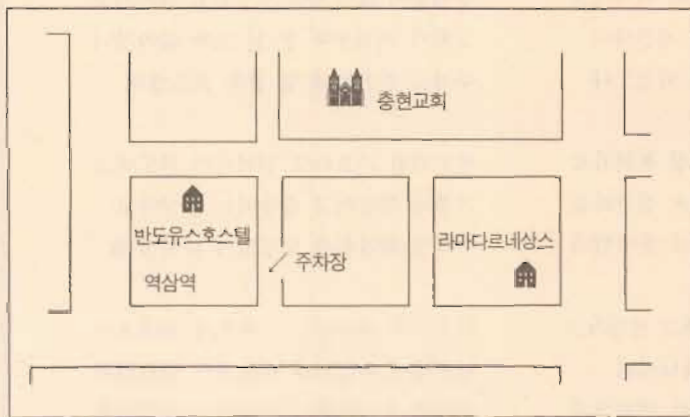
버스를 운영하는 교구에서는 대로변에서 하차하도록 하고 승용차를 가져오는 성도들은 반도

유스호스텔 뒷편의 주차장을 이용하되 특별히 장로, 안수집사, 봉사자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

교회 전면에는 만남의 장소 운영상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교회로 들어오는 골목이 협소한 관계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로변에 내려서 걸어 오면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차 문제 해결 지침

1. 교구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대로변에서 하차하도록 한다.
2. 장로, 안수집사, 봉사자들의 승용차는 반도 유스호스텔 뒷편의 주차장을 이용한다.
3. 택시 이용자는 대로변에서 하차한다.
4. 인근 지역의 성도들은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5. 본당 앞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장년2부

300명 출석의 날

장년부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적극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10월 25일(주일) 12시 30분 교육관 414호에서 "300명 출석의 날"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는 지도 신표근 목사의 "왜 장년2부에 나와야 하는가"라는 말씀과 복음가수 진자매의 특송, 남순자 성도의 악기 연주 및 장년2부에 출석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 떡을 떼며 친교하는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미리 실시하는 것이다.

요한11지회
기도회 열어

요한전도회 제11지회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위한 최종 기도회를 오는 10월 27일(화) 오후 9시 충현기도원에서 갖는다.

또한 24일(토)에는 회원 중 젊은 양 찾기 운동으로 심방조를 4개조로 나누어 심방하고 26일(월)에는 고덕동 일대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회원들의 적극 동참하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 구역예배 ●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전도특별공과
(1992. 10. 30)

하나님의 집을 채우자

- 본문 : 누가복음 14장 15절~24절
 - 찬송 : 255장, 257장
 - 요절 : 누가복음 14장 23절
-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세상에는 아직 복음을 전혀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과, 듣고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특별 총동원전도운동을 하는 것은 전자에 관련된 일입니다. 민족 복음화라는 이 시대에 충현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다양한 전도운동을 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 큰 잔치에 최대한의 이웃을 데려다가 교회를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요?

1.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1) 우리들은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집주인이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사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21절). (2) 이 말씀은 복음의 보편성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최대한의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들려져야 합니다. (3) 온 성도가 밖으로 나가는 순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명할 때 종들은 핍계하지 않고 사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주님의 집을 가득히 채우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적극적이며 민첩한 절대 순종을 나타내야 합니다.

2.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1) 강권해야 할 절박성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불신자가 처한 심각한 위협 때문입니다. 즉 왕의 잔치를 거부한 자들은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자 하는 것이 왕의 계획이므로 그 멸망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강권'의 동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협을 알고도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즉 전도는 하

나님의 저주에서 구원해내는 것이므로 전도 대상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로 설명해서 듣지 아니할 때 팔목을 잡고 끌고 오는 '능동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3) '강권'의 태도입니다. 이 말은 문맥에서 듣지 아니하거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전도는 신사적으로 잘 설명해서 데려올 수도 있지만, 위박 긴급하고 촉박할 때는 강권하여 데려오는 방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1) 적극적인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해줄 이웃을 만나서 그를 위하여 빌어준 평안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다면 성도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는 금세에 평안, 내세에 영구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2) 소극적인 축복입니다. 만일 그 가정이 빌어준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다면 축복은 빌어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대상과 그 반응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열심히 전해주고 빌어주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 적용

• 총동원 초청 전도의 의의

오는 11월 1일의 총동원 전도일은 교회적으로 연합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이며, 가능한 모든 이웃을 교회로 총동원하여 교회에서 교회와 복음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최대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모든 구역원이 각각 최대한의 인원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날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교회로까지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배가운동본부가 맡아 양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신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 기도

이번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최대한의 영혼이 초청되어, 최대한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결신하며, 최대한의 결신자들이 은혜 안에서 잘 성장케 하옵소서!